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 ✓ 아시아 지역 LNG 수요가 증가한다는 보도
- ✓ 그러나 아시아 지역 LNG 수입 터미널 추가 건설 계획은 없음
- ✓ 중국은 PNG, 한.일은 미국 LNG 로 기존 가스 대체할 것

### 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 증가는 가시적이지 않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아시아투데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일본은 아베 총리를 필두로 아시아 역내 LNG 인프라에 11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국의 경우 조만간 한국의 LNG 수입량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인용되며 LNG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지했다. 그러나 IGU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에 건설중인 LNG 수입 터미널은 단 3개뿐이다. 그나마도 중국은 연 4.08bcm 수준의 수입 capa 를 보유한 터미널 2 개를 짓고 있으며 일본은 연 2.04bcm 수준의 수입 capa 를 보유한 터미널을 짓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각국의 2016 년 연간 LNG 수입량이 각각 34.3bcm, 108.5bcm 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작은 규모의 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 터미널 모두 2018 년 가동 예정이며 아직 이를 제외한 수입 터미널 건설 계획은 파악되지 않는다. 즉, 아시아 지역의 추가적인 LNG 수요는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7 월 3 일 “남쪽 나라 LNG 의 위기와 조선 이야기: Global New Energy Roadmap Episode II” 자료를 통해서 중국은 LNG 가 아닌 PNG 위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앞으로 미국산 LNG 를 수입 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가 증가한다기보다 PNG 나 미국 LNG 로 대체될 것이라 판단한다.

#### 아시아 LNG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의견이 잇따름

#### 아시아에 증설되는 LNG 수입터미널은 많지 않음

#### 일본, 靑 LNG 인프라에 11 조원 투자한다...LNG 수요 증가 배경

일본은 전세계 LNG 수입국 1 위로, LNG 수입 대부분을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LNG 인프라 투자는 중기적인 에너지안전 보장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LNG 수입처를 늘려 공급 안정을 노리는 것이다.(중략)...중국은 공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LNG 에 손을 뻗으면서 LNG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중국은 조만간 LNG 수입국 2 위인 한국을 제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국가	터미널 이름	터미널 용량 (bcm)	국가별 2016 LNG 수입량 (bcm)
중국	Fujian Zhangzhou	4.08	34.3
중국	Zhejiang Zhoushan	4.08	34.3
일본	Soma LNG	2.04	108.5

2017. 10. 16. 아시아투데이 발췌

자료 : 아시아투데이, SK 증권

자료: IGU,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